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**보도참고자료**	http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주소령 국제표준협력과장, 전종윤 연구사(509-7400)

아프리카, 표준시스템 전수로 수출길 넓힌다.

- 아프리카 29개국 참여, 아프리카표준화기구(ARSO)와 MOU 체결 -

□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(원장 허경)은 지난 12월 3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**아프리카표준화기구(ARSO*) 총회에서 ARSO와 표준화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, 기술정보 교환, 표준전문가 교류, 국제·지역기구 활동에서의 협력** 등에 관한 **표준협력 MOU를 체결**했다고 밝혔다.

* ARSO : African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

○ **ARSO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지역표준화기구**로서, 케냐, 이집트, 카메룬 등 **아프리카 29개국이 회원으로 구성**되어 있으며, **아프리카 지역의 표준, 계량, 인증, 기술규제 등을 조율**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, 우리 입장에선 **ARSO와 전략적 파트너쉽이 필수적**이다.

□ 그 간, 우리 기업은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**인증정보 부족, 인증기준 불투명, 인증비용 과대요구, 인증시간 과대소요** 등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해왔고,

○ 더욱이, 이들 국가는 인증제도가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국별로 체제와 수준이 다른 **유럽의 인증제도 및 기술기준을 도입**해와, **우리 수출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**이였다.

□ 금번 MOU를 토대로, 우리정부는 **아프리카지역 표준 및 기술규제 정보 등을 한 층 정확하고 빠르게 우리 기업에게 제공**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,

○ **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**하고, **'아프리카 지역 기술기준 조화 및 표준화제도 구축'**을 위해 **우리의 기술기준과 제도를 보급**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.

□ 특히, MOU서명식에 배석한 **케냐의 산업부 장관(Mr. Henry Kosgey)**은 아프리카지역 **무역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표준을 적극 활용**할 계획이며 **한국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**해와, 기술지원, 표준교육 등의 **협력사업 추진에 탄력**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□ 한편, 독일, 영국 등 **유럽 국가는 아프리카지역을 자국의 안정적 자원 및 식량공급지로 활용**하기 위해서 관련 **기술기준 및 인증체계를 보급**하고 있으며,

○ 이와 관련된 **시험 및 인증사업에도 적극 진출**하고 있어, 우리도 **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**이다.

□ 기술표준원은 **내년부터 ARSO와 공동으로 아프리카국가를 대상으로 표준, 기술기준, 인증제도 등에 대한 기술적 자문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**할 계획임을 밝히며,

○ 이러한 표준협력사업은, **자원외교를 위한 입지강화, 사전 기술규제 대응,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과 수출 확대,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국가이미지 제고**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.

붙임 **기술표준원과 ARSO간 MOU 체결**



ARSO 회장 Dr. Kioko Mange'li 와 기술표준원 한애란 과장이 MOU 교환

* 사전 기술표준원장의 MOU서명을 받아, 한국측 대표단장인 한애란 과장이 증인 서명

(좌측부터) ①ARSO 회장 Dr. Kioko Mange'li ②케냐 산업부 장관 Mr. Henry Kosgey
③ ARSO 사무총장 Mr. Andrew Maiyo ④ 기술표준원 한애란 과장



ARSO 회장 및 사무총장, 케냐 산업부 장관, 각국 표준화기관장, 한국대표단 등